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



오늘 제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그리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기독교 학문이 무엇인지, 그런 학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실제로 기독교 학문을 할 것인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라면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과 방법이 무엇이며 기독교 학문과 비기독교 학문의 공통성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일관되게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다원주의와 관련한 논의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특별히 기독교 학문과 관련해서 다원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물음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목,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은 우리가 이미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전제를 이미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만일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원주의는 기독교 학문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라는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을 할 때 지향할 가치, 가슴에 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독서물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산다는 것

먼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에 앞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고유한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삶의 영역은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법의 영역, 학문의 영역, 교육의 영역, 예술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 종교의 영역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구별된 활동과 행위들로 구성됩니다. 경제는 정치와 법과 학문과 교육과 스포츠와 종교와 구별됩니다. 정치나 법도 다른 영역과는 구별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영역이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고유한 영역 안에서의 주권’(de souveriniteit in eigen kring)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각 영역은 다른 고유 영역들이 지닌 활동과 행위를 공유합니다. 예컨대 정치 영역은 법과 학문과 교육 등의 영역과 구별되지만 그 안에 또한 거래와 규칙과 지식, 배움과 가르침, 표현의 아름다움과 게임의 요소, 심지어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스러운 의례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와 규칙과 지식과 배움, 아름다움, 일종의 게임의 요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지식 추구를 활동의 핵으로 삼고 있지만 이 활동에도 상호 교환과 규칙, 배움과 가르침, 표현의 아름다움과 게임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각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지만 다른 영역의 고유한 활동과 특성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은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영역의 다양함뿐만 아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대구 계명대, 미국 칼빈대학, 서강대에서 30년간 가르쳤고 최근에 서강대 명예교수가 되었다.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위원장, 고신대학교 이사장을 맡아 섬기고 있다. 지은 책 가운데는 『물고 답하다』(홍성사)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한길사)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등이 있다.

나라 활동의 다양함(diversity)과 그것들의 상호연관(coherence),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unity)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다양한 것들이 주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선 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다양성이나 종의 다양성을 다원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개체와 다양한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법칙과 질서, 하나의 동일한 규칙성을 보인다고 본다면 우주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원리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관해 ‘우주론적 일원주의’(cosmological monism)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칙과 다른 질서와 규칙에 따라 존재하는 다른 우주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주론적 다원주의’(cosmological pluralism)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우주가 가능하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존재 방식과 운동 방식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동일한 잣대로 여러 우주를 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나 학문, 세계관에도 이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 우주가 아니라 다중 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단일 사회가 아니라 다중 사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 사회는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만일 폴 탈리히(Paul Tillich)의 논제를 따른다면)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규제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도 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 근대, 탈근대의 도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 시기가 공존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 교육,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양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서양 근대 교육과 학문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근대적 방식으로 그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전통과



탈근대의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지배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수의 세계관이 서로 혼합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라 해도 다양한 세계관이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적 상황을 좀 분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영역이 역시 종교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는 하나의 종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어떤 종교나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예배나 의식이 있고, 예배나 의식이 수행되는 공간이 있고, 의식을 집전하거나 전문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에는 수많은 불경이 존재하고 ‘승가’라 부르는 공동체가 있고 예불이 있고 법당이 있고 승려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당(교회당)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고, 성당이 있고, 신부와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경우에도 예컨대 사서삼경이나 사서오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유교는 같은 성을 공유하는 문종과 개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들의 생각,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으나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며, 신관이 서로 다릅니다. 현실 가운데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속주의, 스포츠, 계

임, 유명 인사 숭배 등도 종교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종교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는 제도 종교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삶이 세속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종교보다는 비제도적, 비형식적 유사 종교나 대용 종교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조금 좁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는 다원적인 특성을 드러내는가? 아마 각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철학계의 경우 미국 철학계와 달리 철학적 방법이나 철학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통의 철학 방식을 따르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철학자들도 역사적 방법을 따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 한정해서 보자면 현상학 전통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존재 이해」, 「레비나스 철학에서 향유와 거주」와 같이 한 철학자의 문제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는 방식입니다. 분석철학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인간 향상과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 후쿠야마의 논증 비판」 이런 제목을 단 논문들이 분석철학계에서 나옵니다. 해석학계에서는 예컨대 「가마다에서 적용의 문제」, 「폴 리피르의 작품 「기억, 역사, 망각」을 통해서 본 ‘용서」 등의 논문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거나 (특히 분석철학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중심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심에 따라 정치철학이나 문화철학, 법철학, 윤리학이나 종교철학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다같이 ‘철학’이라는 공통 분야에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학문 영역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루는 지역이나 시대, 다루는 인물이나 텍스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통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상황은 기회이며 도전

철학계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떤 한 방법이나 학파, 어떤 한 조류가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상학회, 분석철학회, 해석학회, 사회와 철학회, 칸트학회, 하이데거학회, 그리고 기독교철학회와 같이 크고 작은 학회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학계의 모습입니다. 분석철학회의 경우, 예컨대 알 플랜팅가나 밥 애담스, 필립 쿨 등 미국에서 유신론 철학자로 알려진 분들의 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철학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분야로 이해되었습니다. 불교철학이나 유교철학, 또는 노장철학은 당연히 철학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철학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저한 유물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신론을 전제해야 학문적 철학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박종홍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같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조차 철학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세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우만 해도 철학은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고 신앙은 철학과는 무관하거나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철학의 경우, 예컨대 자크 데리다나 폴 파이어아벤트, 리처드 로티와 같은 철학자들이 방법론적인 일원론을 배격하고 일종의 방법론적 다원론 또는 방법론적 아나키즘을 주장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난 역사주의와 상대주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오늘 우리 학계의 현실은 하나의 세계관이나 하나의 방법론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초중반 논리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나 현상학이 강력한 철학 운동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훨씬 이전인 근대 철학 초기에 예컨대 데카르트의 철학이 유럽 대륙에서 설득력을 얻을 당시에 비해 보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 이념에 대한 편견

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맑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연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의 연구 과제로 채택될 수 있고, 실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원적 상황은 (만일 우리의 상황을 다원적 상황이라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경우, 논리 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만 해도, 기독교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없지는 않으나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롭게 전개된 상황은 드러내 놓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원주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컨대 유물론과 자연주의 관점을 가지고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서술적(d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라기보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pr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점주의(perspectivalism)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물을 전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 어떤 지점에 그것이 놓여 있는 지평을 배경으로 한 부분, 한 측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지각 경험이 지닌 이러한 관점의 불가피성을 확장하면 우리가 참이라고 수용하는 판단이나 가치, 생각이나 이념, 세계관도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나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양한 세계관 사이에는 '같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incommensurable)라고

한다면 ‘관점주의’ 또는 ‘관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참’이라 믿고 수용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점,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어떤 시점에 우연하게 소유한 세계관에 한정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옳다면 실제로 참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곧 나와 또는 우리와 관련해서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 종교가 있다는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참인가?”, “어느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다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컬어 학자들은 ‘배제주의’ 또는 ‘배타주의’(exclusivism)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문 방법론에서 오직 경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오직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다거나 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종교에도 참이 있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학자들은 ‘종교 다원주의’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의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의미의 다원주의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학계에서 일어난다고 봅시다. 경제계에서는 재화를 서로 주고받지만 학문의 세계는 지식이 유통되는 세계입니다. 지식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이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참된 것’이어야 지식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학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며 하는 활동이 만일 ‘참된 것’을 발견하고 찾고 ‘참된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의미의
다원주의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것’을 드러내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 결과를 내고 명성을 얻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활동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 있는 탁자를 보고 “이것은 탁자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참은 내가 한 말이 ‘맞다’입니다. 그런데 “이 탁자는 네모났습니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선뜻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앗은 자리에 따라서 이 탁자가 네모난 것인지, 둥근 것인지 쉽게 지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답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직접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뒤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또는 “틀렸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다’는 말은 곧 ‘참’이라는 말이고 ‘틀렸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인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술되고 그 진술의 맞음과 틀림, 참과 거짓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7은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맞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맞다’는 말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문에서 논의되는 진술이나 이론, 주장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나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자연이상이다.” 등의 주장은 쉽게 ‘맞다’,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대립되고 유신론과 무신론이 대립되고 유물론과 비유물론이 대립되고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가 대립됩니다. 지금 얘기한 형이상학적인 물음과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체제나 경제체제, 정치체제와 관련된 큰 주장들이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참과 거짓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일관된(정합적인) 논변, 좀 더 단순한 논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논변과 그렇지 않은 논변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리처드 스윈번이 『신은 존재하는가 Is there a God』라는 책에서 시도한 것처럼 유물론(materialism)을 수용하는 것보다 유신론(theism)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훨씬 단순하다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참됨을 보여주기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결과 얻은 것들이 유익할 수 있고, 좋은 것일 수 있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된 것이 유익하고 큰 결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거짓은 쇠퇴하고 시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이면서도 예컨대 ‘궁극적인 실재’를 설정하는 일원론적 종교 다원주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문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학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참된 것’을 포퍼처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감’(verisimilitude)으로 보고, ‘진리’란 개념을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이념’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학자라면 진리에 대한 실재론을 수용하고 실재적인 ‘참된 것’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교학자가 추구할 가치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교학자는 마땅히 '참된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애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은 여러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인 진술의 경우, '참된 것'은 앞에서 든 예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맞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단계에 따라 '참된 것'은 의미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말이니 빈말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참말입니까? 참말은 빈말이 아니라 찬 말입니다. 내용이 채워져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가 비어 있지 않고 제대로 꽂 차있는 열매(眞實)일 때 우리가 참 포도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말은 든 것이 없으니 비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산출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마침내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차 있는 말은 믿음을 얻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참된 것입니다. 만일 믿을 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이론이나 주장, 어떤 설명도 학문의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유통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참되고, 옳고,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가진 생각을 보강하고 정당화하고 훨씬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저런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이론이나 주장이나 사상을 참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은 어떻게 학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수많은 자기주장과 이론을 펼치는 학문의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 참된가, 어떻게 참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이 진실이며 사실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이 투신한 학문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가 취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탐색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라는 명사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그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우리가 부사적으로나 형용사적으로 '참되다'거나 '참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변호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학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로움은 희랍어로 디카이오수네(dikaiosune)입니다. 의로운 것, 바른 것, 옳은 것에 대한 추구라 하겠습니다. 참된 것 못지않게,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성경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그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 정의로움,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됩니다. 불의는 사람에게 가하는 악이고 억울함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억울함과 불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문 안에서, 지적인 추구 안에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불의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적 추구에는 마치 재판 상황이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판단의 과정과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이 개입됩니다. 논문을 읽고 주장을 이해하고 반박하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타인을 대하고 주장을 판단해야 할 과제가 학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일 반대 주장을 하거나 비판하더라도 타인의 주장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 관점을 취하고 어떤 것이나 해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크 데리다조차도 이 정의의 이념, 공의의 이념은 해체될 수 없다고 본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입니다. 굳이 희랍어로 하자면 아가토스네(agathosune)입니다. 무엇이 선함입니까? 선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행위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컨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때의 선함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에 개입하여 그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문의 동기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보고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라틴어 표현에 "Ubi amor, ibi oculus"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눈이 있다." 이때 사랑은 고통을 두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는 곧장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고, 따지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론적 탐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으나 결국에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연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가치는 에베소서에 따르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agathosune)과 의로움(dikaiosune)과 진실함(aletheia)에 있느니라."(엡 5:8-9) 그리스도인 학자가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학문하려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삶의 길에 몸과 마음이 젖어 들고 익숙해 지려면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옛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새로워진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

하나의 방법이나 이론, 하나의 세계관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여러 세계관이 허용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세계관과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통찰과 이해가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며 언제나 공의로움을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학문 행위에서조차도 선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기독교 철학과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련이 기독교학자에게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agathosune)과 의로움(dikaiosune)과 진실함(aletheia)에 있느니라."(엡5:8-9)
그리스도인 학자가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학문하려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학자가 기독교적 학문의 동기와 충동을 자극받는 데는 예컨대 월터스토프의 저작이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우리의 학문적 활동이 정의와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Until Peace and Justice embrace>(Eerdmans, Grand Rapids, MI, 1983)(『정의와 평화가 입맞춤 때까지』(홍병룡 옮김, IVP))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그의 저서 <Justice: Rights and Wrongs>(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Oxford, 2008), <Justice in Love>(Eerdmans, Grand Rapids, MI, 2011)(『사랑과 정의』(IVP 출간예정)) 등에서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최근작 『약자 중심의 윤리: 정의를 위한 한 이론적 호소』(세창출판사, 2015)도 고통과 정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론과 관련된 전문서보다는 오히려 레슬리 뉴비긴의 <Proper Confidence>(Eerdmans, 1995) (『타당한 확신』(박삼중 옮김, SFC출판사, 2013)을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조금 나아간 논의이기는 하나 입문 수준의 책인 에스터 라이트캡 미크의 <Longing to Know. The Philosophy of Knowledge for Ordinary People>(Brazos Press, Grand Rapids, Michigan, 2003)과 좀 더 전문적이고 신학과 철학이 함께 섞여 있는 <Loving to Know. Covenant Epistemology>(Cascade Books, Eugene, Oregon, 2011)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뉴비긴과 미크의 배경에는 결국 마이클 폴라니의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개인적 지식』 표재명, 김봉미 옮김, 2001)가 있습니다. 이 책을 언젠가는 숙독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현실, 그리고 좀 더 폭넓은 기독교적 존재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도이여베이트의 저작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Paideia Press, 2012)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 신국원, 김기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와 <Roots of Western Culture> (Paideia Press, 2012)(『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96)는 좋은 입문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여베이트 사상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Lectures on Calvinism>(Eerdmans, 1970)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도 함께 권합니다.

아직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학자들은 학계에서 지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는 학문을 깊이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식이라도 그 자체로 알고 즐겨워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한다면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우물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가운데는 대립(antithesis)이 있고 충돌이 있고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거리와 간격이 있다고 해도 이 세계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은 세계이며, 인간은 그의 모습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니, 애초부터, 공통의 기반(common basis)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본 칼럼은 201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 기조강연 전문입니다.